

산불방지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

강릉시는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실태와 산림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산림생태계 중요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사천면 국도변(김동명 시비 건너편)에 전국 유일의 산불방지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.

전국유일의 산불방지홍보관

2000년 4월 7일~4월 15일까지 9일간 강원도 고성군·강릉시·삼척시·동해시 및 경북 울진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무려 23,794㏊(남산면적의 80배)에 달하는 엄청난 산림자원과 인명,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건국 이래 최대규모였던 이 산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. 강릉시는 동아일보사에서 기탁받은 국민성금 4억원과 국비 20억원, 도비 6억원, 시비 30억원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산불피해지역인 강릉시 사천면에 '산불방지홍보관'을 건립하였습니다. 이 '산불방지홍보관'은 전국의 산불방지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산불피해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.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강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관람 및 예약정보 -



글 / 강릉시청 산림녹지과 산불예방계 (산불방지홍보관)

